

# 리더십의 원칙 대립



“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쫓아낸다.” (잠언 15:1 TLB)

저자: 존 슈록 (사업가)

이 원칙에서 발견된 핵심 개념에는 밑줄 그으세요.

우리가 누군가와 대립하게 되면 방어적이고 논쟁적으로 되는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.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의 잘못이 입증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.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초췌해져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.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거나 진실을 과장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한다.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보통 부분적으로는 옳은 구석이 있다. 그런데 “부분적으로 옳은” 이것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1.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 마음껏 의견을 쏟아낸다.
2. 일단 의견을 말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데 전념한다.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.

좋은 관계를 갖지 않는 한 좋은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. 좋은 관계는 갈등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 서투른 의사소통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. 우리가 논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싸움에서는 패하거나 또는 말하려는 요점을 잃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. 우리에게 불화가 생기면 (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다) “상대와 빨리 화해해야 할”(마 5:25) 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.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쫓아낸다. 우리의 반응이 부드럽고 점잖으면 상대는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의견을 숙고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되면 토의를 계속할 수

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. 강력한 힘을 가진 말들은 놀랍게도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. “죄송하다”는 말은 강력한 말인데도 이 말이 부드럽고 섬세한 혀에서 나올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한다. 부드러운 대답은 탕크나 총 같은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.

서로 논쟁하기에 앞서 자문해야 할 질문 세 가지가 있다.

1. 그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? 자만과 과신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라.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할 수도 있다.
2. 나는 내 감정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가? 분노가 당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변론에 대응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라.
3. “당신이 옳을 수 있어요” 또는 “그건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”와 같은 말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?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세를 낮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. “저는 잘 모르겠는데요”나 “확실하지 않은데요”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.

말의 사용 및 대응법이 인생에서 전쟁이냐 평화냐, 친구냐 적이나, 실패냐 성공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. 전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것보다 그래도 무언가 일부라도 가진 것이 더 낫다는 걸 기억하라. ‘자기가 유식하다는 것을 아는’ 사람은 고함지르고 시끄럽게 하며 거칠게 굴 필요가 없다. 만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안하다는 징후다.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며 주장한 것이 틀리면 아주 곤란해진다.

오만하고 거칠게 구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답하면 여러 문제를 피하면서도 더 생산적이 된다. 토론이 엄청난 열기를 분출하며 진행될 때 부드럽게 대답하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 때문에 스스로 난처해지게 된다.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절대 회의장을 떠나지 말라.

이 원칙은 1년 동안 실시되는 인성개발프로그램의 일부이다.

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

깊이 생각해보기:

아이디어는 당신이 작동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.

1에서 10까지 자신을 평가해보세요.	1	2	3	4	5	6	7	8	9	10
당신은 왜 이런 점수를 주었나요?										
당신이 점수를 올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?										
당신은 이 원칙의 유익한 점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나요?										
이 원칙에 대한 일일 독서 목록을 확인해보세요.	월	화	수	목	금	토	일			

완료

미완료